https://doi.org/10.14400/JDC.2017.15.9.471

IPTV 지상파 실시간방송 채널의 시청률 추세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이상호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A Study on the Viewing Rate Trends of Digital Media Service Special Reference to Terrestrial Real Time Broadcasting of IPTV

Sang-Ho Lee
Professor, Kyung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IPTV, 디지털케이블TV 등 디지털미디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 채널의 시청 률 추세 변화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수년 사이에 젊은 층의 TV 시청은 감소하고, 미디어의 대표격인 지상파의 시청률이 감소하면서 방송 산업 전반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사업자의 VOD 홀드백이 연장된 이후 시청자의 경쟁 채널과 모바일 매체로의 이동은 급격히 이뤄졌다. 연구자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시청률에 종합편성채널, CJ E&M 등의 계열 채널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통계적 방법론인 시계열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연관성을 검증하였으며, 지상파 실시간 방송 시청률 감소의 원인을 면밀하게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입안주체와 사업자들이 시청자의 만족과 시장의 상생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IPTV, 디지털미디어, 지상파, 실시간방송, 시계열분석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viewing rate trends of digital media service special reference to terrestrial real time broadcasting of IPTV. In a few years, TV viewership of young people is decreasing, the audience viewing rate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media decreases, and the change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is progressing. Especially after the terrestrial broadcaster 's VOD holdback was extended, the viewer' s movement on the competitive channel & mobile media was rapidly progressing. Researcher assumed that the viewing rate of the terrestrial real-time broadcasting has influenced the comprehensive channel, CJ E&M subsidiary channels. As a result, researcher verified using statistical methodological time series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 expects media players to prepare policies for viewers' satisfaction and symbiotic growth of markets.

Key Words : IPTV, Digital Media, Terrestrial Broadcasting, Real Time Broadcasting, Time Series Analysis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1 August 2017, Revised 31 August 2017
Accepted 20 September 2017, Published 28 Sept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Sang-Ho Lee(Kyungsung University)
Email: stevenlee@ks.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본 연구는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로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시청하고 있는 IPTV에서 지상파의 실시간 시청률의 추세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지상파 사업자의 다시보기 VOD의 홀드백을 1주에서 3주로 연장한 2013년 8월 전후의 시청률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지상파 사업자들이 실시간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고 유료 VOD의 매출을 향상시키고자 시청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정책이 시청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다.

실제로 지상파는 VOD홀드백을 1주일에서 3주로 연장하면서 유료 VOD의 가격도 2차례 인상하였다. 또한 지상파는 3주의 홀드백을 6주로 연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지상파가 VOD 홀드백의 연장에 집착하는 것은 지상파의 시청률을 높이고자 함과 유료VOD의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것 외에도 홀드백을 무기로 디지털케이블 SO 사업자와 IPTV 사업자들을 압박하여 가입자당 수익(CPS)을 인상하기 위함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Cho, Chung[3], Lee[15]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상파가 TV다시보기 VOD 홀드백을 연장하면 할수록 시청자는 지상파의 실시간 방송 채널 시청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지상파가 홀드백을 차등화하여 적절히 관리하면 전략적으로 좋은 협상수단이자 시청률 증대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더 늦기전에 지상파를 떠나는 시청자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TV 시청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TV가 아닌 단말과 플랫폼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 환경변화는 지상파에게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고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지상파와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이 실기하지 않고 시청자를 다시 TV앞에 모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길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주제 1] 지상파실시간 방송채널 시청률은 지난 수년간 어떤 추세로 변모하였는지 시계열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연구주제 2] 지상파실시간 방송채널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종편과 CJ E&M 계열 PP의 관계를 회귀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2. 문헌 고찰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이후 지상파와 차별화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나 내용 측면의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뉴스의 차별화 요인, 저널리즘 관점의 분석, 보도 공정성, 방송사 경영측면의 성과 등의 연구와 지상파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1,2,4,5,6,7,8,9,12,13,17,18,19].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케이블TV, IPTV 등 디지털미디어서비스에 제공되는 VOD 서비스 관련 지상파 홀드백 이슈의 영향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논의하고 있는 연구가 보고되었다[3,15]. Lee[15]는 홀드백(holdback)을 '판매창구마다 순차적으로 상이한 구매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지상파 사업자가 실시간 본방송의 송출이후에 3주에 걸쳐 무료VOD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는 것을 홀드백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Lee[15], Cho, Chung[3]등은 홀드백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지상파의 홀드백 연장 정책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고 보았으며, 지상파의 실시간 방송 시청률의 하락에 VOD 홀드백의 연장이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3년 8월 이전까지 꾸준히 성장하던 VOD 시청건수가 전체 건수의 30% 가량 차지하던 지상파 VOD의 시청 수요 감소로 인해 동반 하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검증하면서 지상파 시청수요가 키즈나 영화, 종편 등의 콘텐츠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사업자는 VOD의 시청 감소로 반대급부인 지상파의 시청률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했겠지만 시청자는 지상파로 이동하는 대신 종편과 CJ 등의 채널로 이동하게 된 역선택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지상파의 실시간 채널이 어떻게 하락하고 있는지 통계적인 입증은 제외되어 있는 점이 그 연구들의 한계점이었다고 보았다.

3. 연구 방법

본고에서 분석에 활용한 미디어사업자의 시청률 자료는 기업의 내부자료를 학술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협조를 구해 확보하였다. 다소 특이한 점은 미디어 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의 특성상 전수조사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간 방송의 시청률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청률을 수집하는 방식을 준용한 것인데, 현업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률관련 수집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불필요한 이중 데이터 수집의 낭비를 방지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시청률은 시청점유율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는 천재 미디어 단말을 켜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용자 중에서 시청 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보다 설득력있는 자료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전문기관을 통해 입수한 동일 기준의 점유율을 수집해야 했기에 데이터는 사업자의 영업기간 중에서 일정 기간만을 추출해야 했다. 따라서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38개월의 기간동안 지상파 3사 및 계열 PP, CJ E&M 계열 PP, 종합편성채널 등 45개 채널의 시청점유율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미디어 사업자는 IPTV 사업자 중에서 한 사업자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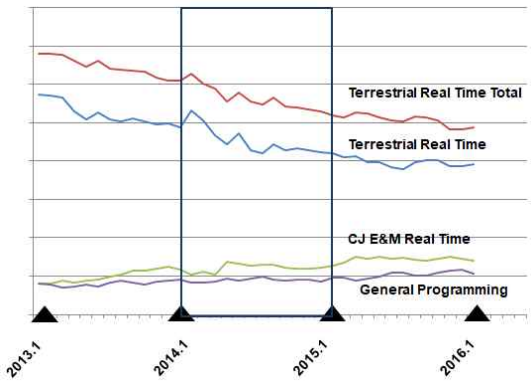
분석에 활용된 채널들은 다음과 같다. KBS1, 2채널과 KBS계열PP인 DRAMA, JOY, KIDS, N SPORTS, N Life, W채널, SBS와 계열PP인 CNBC, funE, MTV, 골프, SPORTS, 축구채널, 플러스, MBC와 계열PP인 every1, LIFE, MUSIC, NET, QueeN, SPORTS+, 게임, 드라마넷 등이었다. 한편 CJ E&M계열 채널로는 Mnet, tvN, OCN, 채널 CGV, SUPER ACTION, Catch On, Catch On plus, O'live, On style, XTM, Tooniverse, 바둑TV, OGN, O tVN, 중화TV 등의 채널,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인 JTBC, 채널A, TV조선, MBN과 그 계열채널 들의 시청률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통계 패키지는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시계열 분석 방법은 ARIMA 분석과 지상파 시청률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등으로 정리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지상파 시청률의 감소 추세 확인

그림 [Fig. 1]은 지상파와 지상파 계열 총 시청률, CJ E&M, 종합편성 채널 등의 38개월간 시청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CJ E&M계열과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 증가는 지상파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상파는 2013년 하반기 이후부터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상파의 시청률 하락의 원인을 이들 비교되는 두 채널 군으로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지상파의 프로그램 경쟁력이 경쟁 채널에 비해 차별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 채널들이 규제가 덜한 영역에서 자극적인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이목을 모으면서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무장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자는 수많은 채널 중에서 지상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채널로 CJ계열과 종합편성채널 계열이었다고 가정한 것이다. 실제 CJ와 종합편성채널 이외의 다른 채널들과의 관계에서 지상파의 시청률 하락이 잘 설명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고의 결과 파트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채널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Fig. 1] Viewing Rate of Real Time Broadcasting

<Table 1>은 지상파 실시간 방송 시청률의 추세를 시계열 분석 방법론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연구자는 지상파 채널 외에 여러 채널 군들을 비교한 결과 CJ E&M계열과 종합편성 계열 채널들이 지상파 방송 실시간 채널 시청률의 변화를 설명하고 유의미한 예측치를 생성하는

<Table 1> ARIMA model parameters table of Real Time

			Estimate	SE	t	Sig.
Model 1	Terrestrial Real Time	constant term	65.870	2.399	27.456	.000
		AR	.483	.155	3.116 **	.004
	Comprehensive PP Real Time	number	-.881	.198	-4.436 ***	0.000
	CJ E&M Real Time	number	-1.268	.369	-3.432 **	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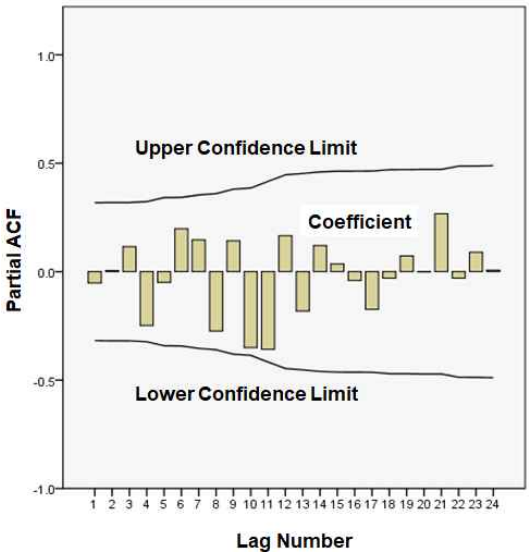
**p<.01, ***p<.001

<Table 2> ARIMA model statistics table of Real Time

	Number of Predictors	Model fit	Ljung-Box Q (18)			Number of Outliers
		Stationary R-squared	Statistics	DF	Sig.	
Model 1	2	.905	34.736	17	.007	0

<Table 3> ARIMA model fit table

	Number of fit average	Max, Min
Normal R-squared	.905	.905
R-squared	.905	.905
RMSE	1.213	1.213
MAPE	1.963	1.963
MaxAPE	5.870	5.870
MAE	.889	.889
MaxAE	3.017	3.017
BIC	.768	.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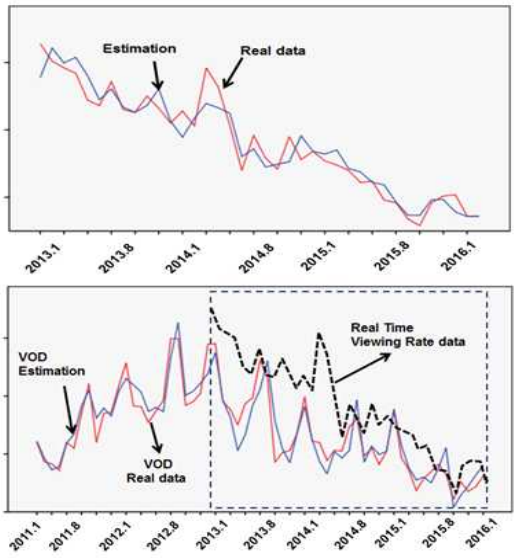
[Fig. 2] Partial autocorrelation plot of Real Time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SPSS 18.0의 ARIMA 시계열분석을 통해 지상파 실시간 방송 채널 시청률의 추세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Table 1>에서 종편채널과 CJ E&M의 채널 시청점유율은 각각 0.000과 0.002로 지상파 실시간방송 시청점유율의 예측에 유의미한 독립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t값은 종편이 -4.436이고, CJ E&M은 -3.432로 나타나 CJ보다 종편의 시청률변화가 지상파의 시청률 변화에 더 큰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2>와 <Table 3>의 모형적합 통계량 분석을 잔차 자기상관함수와 Ljung-Box Q(18) 검증 통계량으로 예측 모형의 적절성을 검정하였는데, 검정결과 모형 예측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MAPE 값이 1.963으로 나타나 권고치인 10.0보다 작아 정확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Ljung-Box Q(18)의 유의값이 0.007으로 나타나 0.05보다 낮아 잔차가 서로 상관되지 않는 잔차 독립성을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Fig. 2]에서 잔차함수의 상관도가 상위 신뢰한계선과 하위 신뢰한계선 안에 포함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지상파의 실시간 방송 시청률은 종합편성채널과 CJ 계열 채널의 시청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검정할 수 있었다.

전술한 ARIMA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상파 실시간 방송 시청점유율의 관측치와 예측치를 도식화 하면 [Fig. 3]과 같다. 상단의 그래프는 지상파의 실시간방송 시청점유율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단의 그래프는 VOD

의 월별 관측치와 비교하는 그래프인데, VOD의 하락 추세와 실시간 방송시청률의 하락 추세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지상파 홀드백 연장으로 인한 VOD의 감소추세와 실시간 방송의 감소추세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Fig. 3] Predicted and observed values of Real Time vs. VOD

4.2 지상파 시청률에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연구자는 지상파의 실시간 채널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종합편성PP, CJ E&M의 PP 시청률과 VOD 시청건수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지상파 전체의 시청 점유율과 지상파 계열PP까지 모두 포함한 시청점유율 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Table 4-5> 모형1-2에서는 독립변인으로 CJ E&M, 종합편성PP의 시청 점유율을, <Table 6-7> 모형3-4에서는 CJ E&M, 종합편성PP의 VOD 시청 건수로 설정하였다. CJ E&M 계열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전절에서 지상파의 시청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11,14,15,16].

<Table 4> 모형1에서는 독립변인으로 CJ E&M, 종합편성PP의 시청 점유율이 지상파3사의 시청률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5> 모형2에서는 독립변인으로 CJ E&M, 종합편성PP의 시청 점유율이 지상파3사의 계열PP를 모두 합한 전체 시청률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절에서 그래프로 확인한 부분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한 것으로 CJ와 종편의 점유율 확대가 지상파의 채널 시청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Table 4> Regression model 1

model 1 (Terrestrial)	B	SE	b	t	p
(Constant)	64.516	1.879		34.336	.000
Comprehensive PP (live)	-1.034	.161	-.689	-6.420	.000
CJ E&M PP (live)	-.931	.351	-.285	-2.652	.012
F : 140.539 (p<0.001)					
R : .943, R^2 : .889, Adj R^2 : .883					

<Table 5> Regression model 2

model 2 (Terrestrial Total)	B	SE	b	t	p
(Constant)	76.686	1.954		39.238	.000
Comprehensive PP (live)	-.570	.168	-.414	-3.404	.002
CJ E&M PP (live)	-1.645	.365	-.548	-4.504	.000
F : 105.486 (p<0.001)					
R : .926, R^2 : .858, Adj R^2 : .850					

<Table 6> Regression model 3

model 3 (Terrestrial)	B	SE	b	t	p
(Constant)	60.054	2.374		25.299	.000
Comprehensive PP (VOD)	-.001	.000	-.405	-4.356	.000
CJ E&M PP (VOD)	-.001	.000	-.629	-6.764	.000
F : 47.481 (p<0.001)					
R : .855, R^2 : 731, Adj R^2 : .715					

<Table 7> Regression model 4

model 4 (Terrestrial Total)	B	SE	b	t	p
(Constant)	69.290	2.057		33.686	.000
Comprehensive PP (VOD)	-.001	.000	-.369	-4.204	.000
CJ E&M PP (VOD)	-.001	.000	-.676	-7.690	.000
F : 55.364 (p<0.001)					
R : .872, R^2 : .760, Adj R^2 : .746					

이어 <Table 6> 모형3에서는 독립변인으로 CJ E&M, 종합편성PP의 VOD시청건수가 지상파3사의 시청률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7> 모형4에서는 독립변인으로 CJ E&M, 종합편성PP의 VOD 시청 건수가 지상파3사의 계열PP를 모두 합한 전체 시청률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상파의 VOD 홀드백 연장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옮겨간 CJ와 종편의 VOD 시청건수 증가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지상파의 시청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과 정책제언

본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3년여에 걸친 지상파의 실시간 시청점유율을 관측하고 그 원인을 경쟁채널의 실시간 시청 점유율과 경쟁서비스인 VOD 서비스 실적 등을 적용하여 회귀분석하는 등 방법론 측면의 다각적 시도를 하고자 한 점에서 실무적인 공헌점이 명확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실시간 방송채널 시청률은 지난 3년간 종편과 CJ 계열 채널의 증가에 영향을 받으며 감소하였으며 이를 시계열방법론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지상파실시간 방송채널 시청률에 종편과 CJ E&M 계열 PP의 실시간 방송 시청률과 VOD시청 건수의 증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방송 시청 점유율 감소는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이 다각도로 도출될 수 있다. 전자는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가 감소한 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후자는 시대적인 흐름상 신규로 진입하는 경쟁매체의 등장과 모바일 시청의 확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쟁구도가 또한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것이 VOD 홀드백 등의 시청자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자의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인해 시청자의 외면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상파의 VOD 홀드백 연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수의 선행연구결과가 보여준 분석과도 일치하는 내용인 것이다. 결국 지상파 사업자가 자사의 실시간시청률 증가를 기대하고 진행한 홀드백 정책은 유료VOD매출을 소폭 증가시키는 정도에 그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실시간 방송의 시청률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시청자의 역선택을 야기한 것이다. 연구자는 지상파 다시보기VOD를 통해 지상파의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는 욕구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린 정책으로 인해 시청자가 지상파 자체를 외면하고 종편과 CJ 등 여타의 대체재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어 시청자로부터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2017년 현 시점에 보고되는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상파의 시청률 감소는 시청자의 외면을 야기한 지상파의 정책과 경쟁미디어의 활성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지상파가 중심언론매체로서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입안주체와 사업자들이 시청자의 만족과 시장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상생의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su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7

REFERENCES

[1] I.H. Cho, S.W. Lee, "A Study of Media Diversity of Terrestrial Broadcast Channels and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26, No.6, pp.177-213, 2012.

[2] J. Y. Cho, J. Song, B.G. Lee, "Analyzing Korean Media Industry Trends and Competitive Strategies by Introducing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ol.12, No.1, pp.39-53, 2011.

[3] S. Cho, D. Chung, "Effect of the VOD Holdback Strategy Change on IPTV and Cable TV VOD

Usage," Jou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5, pp. 142-150, 2015.

[4] R. Coase, "Durability and monopol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15, No. 1, pp.143-149, 1972.

[5] J.Y. Ha, "A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Newly Licensed 'Comprehensive Programming' TV Channels in Korea - Can They Meet the Policy Goals?," Journal of Broadcasting Research, No.85, pp.37-67, 2014.

[6] S.Y. Han, S. Youn, "Competition and Changes in Korean Broadcast Journalism : Examina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TV Networks'Main News Program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30, No.1, pp.169-210, 2016.

[7] J.G. Jeong, "Strategies of Local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Jou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7, pp. 192-209, 2011.

[8] H.K. Jung, "Structural Model Analysis on UHDTV Service Usage : Control Effects of Symbolis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7, pp.359-365, 2017.

[9] J.T. Jung, "The Attitude on Introduction for Total Amount in Terrestrial Broadcasting Television : Comparison of Public and Professional Aware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 pp.205-213, 2015.

[10] H. Keum, J. Cho, "Political Talk Shows and New "Media Malaise" - Interactive Effects of Talk Show Viewing and Ideology on Political Trus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29, No.3, pp.5-35, 2015.

[11] C.N. Kim, S.H. Lee, "A Study on Composing direction about Mobile Unified Communication Service based on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9, pp.251-264, 2016.

[12] D.M. Kim, "Media Groups' Management Strategies : Business Areas, Platform Strategies, Content Distribution Strategies and Business Strateg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157-167, 2016.

[13] M.J. Kim, "A Study on the factors on use diversity or usage of mobile video servi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389-396, 2016.

[14] S.H. Lee, "The Relation of Addiction and Sustainable Use of Social Media Ser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 pp.273-280, 2014.

[15] S.H.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Extension of Terrestrial TV VOD Hold-back on the Viewing Behavior focusing on IPTV & Digital Cable TV,"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15, No.5, pp.643-650, 2014.

[16] S.H. Lee, J.B. Kim, Y.B. Kim, "A Study on the Proposal of Spiral Evolution Model of IPTV, M-IPTV, OTT & Smart Media focusing on Exploration & Exploitation Theory,"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15, No.3, pp.327-338, 2014.

[17] G.M. Park, H.J. Woo, "Exploring Deliberation for "the Ethical Level" and "Subjects & Representation Techniques" in Television News and News Shows - Focusing on Terrestial Broadcasting and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in Year 2012~2014," Journal of Broadcasting Research, No.91, pp.131-164, 2015.

[18] S. Park, "Windowing Strategies of Korean Broadcasting Networks, A Choice between Media Diversification and Intertemporal Price Discrimination," Broadcasting & Communication, Vol. 8, No. 2, pp.6-35, 2007.

[19] M.B. Song, S.H. Lee, "A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Relation of Social Media & Movie industry : Focusing on Emotional Perception & Audience Trend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 pp.295-303, 2014.

이 상 호(Lee, Sang Ho)

- 2003년 8월 : Aalto University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8년 8월 : 서울과학종합대학원(경영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디자인&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융합콘텐츠, 디지털미디어, 디지털정책, 전략경영
- E-Mail : stevenlee@ks.ac.kr